

# 플친폰, 갤럭시노트10 20만원, 아이폰11 pro 50만원 대 가격 특가

기사입력 2020-01-24 00:02



2020년 5G 가입자 수가 1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 2월 삼성전자 갤럭시 S20 시리즈와 LG 전자 LG V60, LG G8 ThinQ가 공개되며, 애플도 2020년 9~11월 사이에 아이폰12 시리즈에 5G 모뎀을 장착해 시장에 참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열 준비를 마친 SK, KT, LG U+ 통신사들이 새로운 신모델의 출시에 발맞춰 다시 한번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정부도 발벗고 나서 5G 기지국 확대 작업도 가속화 된다면 5G 서비스 제공 지역이 더 촘촘해지고, 통신 품질도 더욱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삼성전자의 차기 스마트폰 공개 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작으로 꼽히는 갤럭시 S20의 추정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해외 개발자 커뮤니티 'XDA 디벨로퍼'는 갤럭시 S20 플러스의 실물 사진을 확보했다며 입수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유출된 사진을 보면 갤럭시 S20 플러스는 앞면 윗부분의 카메라 구멍을 제외하고 전체를 화면으로 채우는 '홀 디스플레이' 방식을 채택하고 뒷면엔 4개의 카메라를 탑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공개 행사에서 조개껍질 형태의 새로운 폴더블폰 등 차기 스마트폰 신제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20 시리즈를 6.2인치 갤럭시S20(LTE-5G), 6.7인치 갤럭시S20 플러스(LTE-5G), 6.9인치 갤럭시S20 울트라(5G) 등 총 5개 모델로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S10e를 계승한 보급형 제품 모델명이 갤럭시S20이 되고 기존 갤럭시S10은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10 플러스는 갤럭시S20 울트라가 계승하는 방식이다. 이중 고급형 모델에는 1억800만 화소

카메라와 5배 광학줌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는 5G 모델로만 3종이 출시될 전망이다.

LG전자도 2020년 2월 MWC에서 V60, G9를 공개할 예정이다. 13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다음 달 24일(현지시간)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0에서 LG V60 씽큐와 G9 씽큐를 동시에 공개한다. LG V60 씽큐는 5G를 지원할 게 유력하다. LG전자는 국내를 비롯한 5G 상용 국가에 V60 씽큐를 순차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G9 씽큐는 LTE 지원이 유력하지만 진행 중인 테스트를 마치고 지원 네트워크 서비스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는 V60 씽큐를 시작으로 주요 올해 5G 시장 선점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LG전자는 V60 씽큐와 새 듀얼 스크린을 함께 선보인다. 새 듀얼 스크린은 지난해 전작 V50 씽큐, V50S 씽큐 듀얼 스크린과 비교해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한층 더 진화한다. 5G와 멀티태스킹 경험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LG 스마트폰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는 주요 역할도 하게 된다. 최근 유출된 V60 씽큐 렌더링 이미지에 따르면, 신제품은 후면 쿼드 카메라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후면 케이스에 원형 지문인식 버튼이 사라진 것을 미루어 보아 전면에 화면 지문인식을 지원할 전망이다. V60 씽큐는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수장에 새롭게 선임된 이연모 MC사업본부장 부사장의 첫 작품이자 회사가 사활을 건 5G 시장 전략 폰인 만큼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 가격 239만8000원에 비해 100만 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Z세대를 공략하며 폴더블 시장 확장에 나서는 사이 듀얼 스크린 전략 강화로 V60 씽큐 신모델을 공개하며 LG전자만의 길을 걷는다. V60는 기존에 없던 신제품의 등장보다는 LG전자가 듀얼 스크린 모델로 첫 출시했던 V50과 후속작 V50S를 혼합한 형태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2020년 신제품 출시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온라인 최신 스마트폰 할인 전문점 '플친폰'에서는 인기 모델에 최대 할인을 적용해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0 20만원대, 갤럭시노트10 플러스 30만원대, 최초의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는 80% 할인된 가격으로 개통 가능하다. LTE 인기 스마트폰 아이폰11 20만원대, 아이폰11 pro 50만원대, 아이폰11 pro max 80만원대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벤트 할인 정보는 카카오톡 "플친폰" 및 포털 검색 "플친폰"을 통해 확인 및 상담 가능하다.

온라인뉴스팀기자 onnews@dt.co.kr

핫 섹션 : [ 🔥 HOT 포 토 ] / [ 육감적 영상창작소 ditta ]

네이버 채널에서 '디지털타임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9&aid=0002583348>

---